

# 원자력의 밝은 미래 기약

유 희 열  
과학기술부 차관



**존** 경하는 강창순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 최양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국내의 귀빈 여  
러분!

오늘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6  
회 연차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  
니다.

먼저, 오늘 원자력기술상과 국제협력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와 격려  
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 천년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는 에너지 자원 확보와 환경 보전입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세계는 화석 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원으로는 풍력·태양열·조력 등이 있으나 경제성과 기술적  
인 제약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계 전문가 여러분!

우리는 지난 1997년 원자력계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수립한 제1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세계 7위의 원자력 이용 국가로 도약  
하였습니다.

정부는 2007년경에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이용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제  
2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성과와 함께  
원자력의 기술적 능력과  
원전 운영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성과와 함께 원자력의 기술적 능력과 원전 운영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2차 원자력 진흥 종합 계획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자력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 원자력계 주위에는 많은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력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아직 발전 원가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원자력 선진국들은 향후 원자력의 이용 확대에 대비하고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제4세대 원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동 개발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일터를 세계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전을 설계·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도 자력으로 건조했으며, 핵연료도 설계·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학·농학·식품 등의 분야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확대와 진흥을 위해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비발전 분야의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2010년에는 3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자력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행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원자력이 안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시민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즉시 공개함으로써 원자력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중에 원자력계 종사자들이 가져야 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담은 「원자력 안전 헌장」을 제정·공포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 기술을 자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협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성심 성의껏 도와주는 것이 원자력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귀빈 여러분!

이러한 국내외 원자력 환경 변화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연차 대회的主제를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전망-기회와 도전」으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차대회가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 원자력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자력산업 회의와 원자력학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